

가정과괴犯 또 原審개고 重刑

서울고법 1審 15년을 20년으로

잔혹手法비해 刑가 법다

86년이 두 번째 : 嚴罰의지

항소심법원이 가정파괴사범에 대해 1심형량을 대폭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가정과회사법에대한 함소심
의 중핵선고는 지난 86년에이
어 두번째로 날로 높고있는
악범죄에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
다.

서을고법 형사 3부 (재판장
鄭相鶴 부장판사)는 13일 김
두경사 등 형의로 구속 기소해
1시간 30분 15분을 선고하
는宋令錫 피고인 (24주집·충
남 論山郡上月面 石宗里 77
5) 에게 「가축이 보는」에
서 부도자를 폭행한 형의는인
면수심의 무자비한 범죄행
위를 받아 20년하단」며 「원
심에 판기」 정형 20년을 선고하
고 단편 피고인 3명의 형수도
기각했다.

『정만부』 판본에서 『피
인들』이 두 판본들의 첫머리에
고함사랑을 인용한 것이 있는 사람이
만흔데다, 피해를 인용할 때의
나타내는 서체와 인칭을 보면
나·너·그·자·네까지 보다가
우에 손발이 붙은 부조자를
감제부동형이라고 불렀으면
이 무차별하기 이를 데 없다. 1
권의 『정만부』에는 『가림』
과 『가림』이다.

宋伯公은 지난해 4월 29일 하오 11시 30분경 고평인 金德培 피고인 (25층 단 大德都山内面 上所里 614) 이 땅을 보는 가운데 다른 2명과 함께 金의 친구인 金모씨 (25大田市中區 鳳鳴洞 집에 들어가 金씨와 부인 尹모씨 (26) 및 노도발 (4) 들 일가족 5명을 안락제 불에

로 뿔뿔히 뿔 켜가 끼고 있던
손목시계 1개의 속도 노모써
의 천과 5단추를 빼앗아 달
아왔다.

지나해 11월 朱波고인에게
역 15년, 金德標피고인 등 2명
에게 징역 10년, 鄭炳淳피고인
(24)에게 징역 7년을 각각

1심인 大田지법형사1부는

선고했었다.

常習인정 競合犯 규정 적용 주목

해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가정과피법에 대한 범죄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두번째 케이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죄정판

지난 86년을 서울고법 형사 2부가 미션된 가정과피해인孫斗균에게 단기 5년, 장기 10년의 1심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라는 형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해 경합범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형량을 늘

재민이 그 친구를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버린 것을 한참동안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친구를 버린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린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린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이다."

五教

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획한 5명을 동시에 사형집행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라도 갈

이달아
가정과
범죄가
발생,
중환을
선고했
었다.

사회문제화 하면서부터. 당시
법조계에서는 흉악범에게는
엄벌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는
정당한 법을 비롯, 악
법도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는 점을 강조
했어.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절적인 강령 사범에게 사형까지 구형토록 지시했었고 법무부는 85년 11월 살인을 저지른 지양근 강도 3범을 3년을

歐美제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건해가 많다.

【金利澤기자】

【金利澤기자】